

질의 · 서면 답변서

질의	우강호	위원	답변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회의	제5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요지〉

- '98 군정홍보 내역은

〈답변〉

- 별첨

평창군정홍보내역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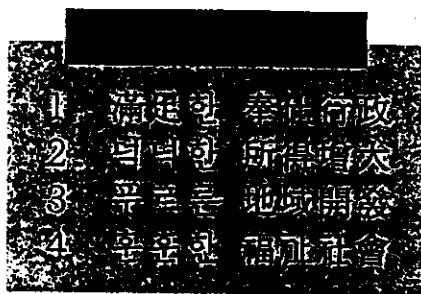
년도별	신문사명	광고내용	광고료	비고
합계	4		10,450	
소계	1		2,750	
'97년도	강원일보	'98강원년감	2,750	'97.12
소계	3		7,700	
	강원일보	민선1기를 마무리하며	1,100	'98.3.27
'98년도	도민일보	민선3년 결산	1,100	'98.4.17
	강원일보	강원일보지령 15,000호축하 및 군정홍보	5,500	'98.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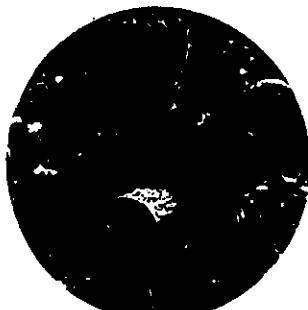
천혜資源 우리平昌 함께가꿀 未來의 땅



郡守 金容郁



議長 李相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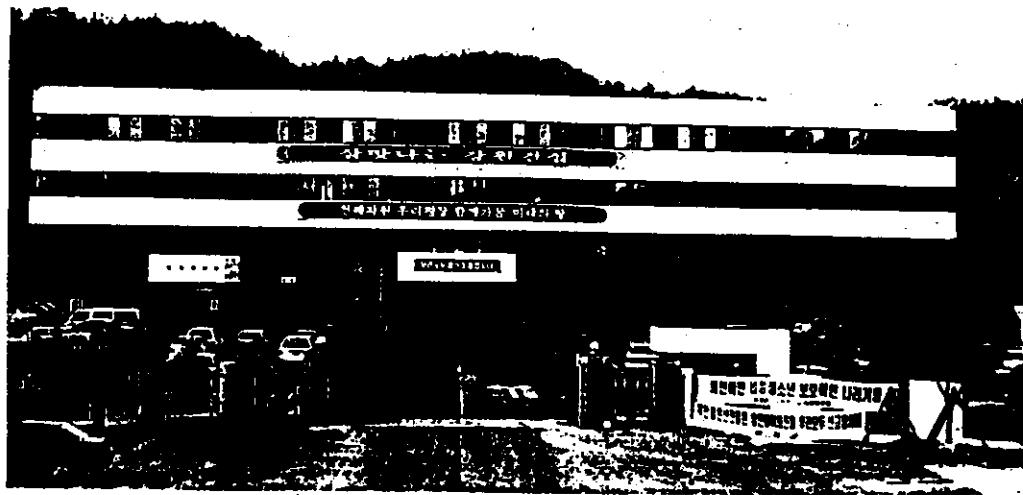
郡花 : 작약



郡鳥 까치



郡木 : 전나무



平 昌 郡

民選1기를 마무리하며

原曰
新

전국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 역점

제1기 민선지방자치 3년을 돌아본 평창군은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기대와 함께 행정 서비스의 국대화를 이를 초석을 다졌다라는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국대화를 기록하는 전국 최고 시설의 종합 민원실은 규모 못지않게 내실있는 봉사정신의 마음을 기다롭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 어줘 평창군이 무엇보다 가장 자랑하는 성과로 손꼽고 있다.

「金容那(김용옥)」 군수는 「종합민원실은 선거전 국민들에게 머슴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좀 더 내실있는 봉사행정이 갖추어 지면 전국 지방자치에서 가장 부러울을 시켜 줄 것」이라며 주민들과 첫 대면하는 종합민원실에 거는 기대를 밝혔다.

金容那 평창군수



천 8백여 헏의 김자전량을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다.

일본과의 4차례 협상을 통해 대관령 한우를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해 지난해 2백미리터를 수출 한데 이어 올해부터 매년 7백~8백미리터 수출하기로 하는 등 농축산물을 가격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으로 농협중앙회와 협력 사업을 추진해 전국단위 총 4백 억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87억원을 확보. 이미 농가들에게 은자 지원했고 평창읍여민리 농업개발센터와 용평면이목정리의 농산물 산지공판장 사업추진으로 전국최고의 농업 선진군의 위상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김군수는 「내년도 동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이

대관령한우 일본수출...농가수익 한몫

'99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미래형 관광도시 육성 밀거름

또 용평면장평리의 노인복지회관 및 진부면 장애인 복지관·농민건강센터 운영등 복지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대화체육관 대관령 궁도장 진부 도서관 건립 등 문화체육공간 확충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주민목

구에 크게 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일생산과 판매부진으로 농민들이 애써 생산한 김자 가 방치되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김자풀이주기 운동을 전개. 지역 농민이 생산한 3

는 평창군이 미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5만 군민들의 화합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平昌=黃滿誠기자>

◇평창군봉평면창동3리 부녀회(회장: 정연자)는 그동안 고철 및 폐품을 수집 판매한 수익금으로 26일 노인회원 및 지역주민 80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열고 단합을 도모했다. 【平昌】

<平昌> ◇98년도 1학기 평창장학회 이사회 회의= 27일 오전 11시 군수 집무실.

◇경우회 월례회 회의= 27일 오전 11시 경찰서 회의실.

◇문화방송 평성 책임자 회의= 27, 28일 이틀간 평창 보광 휴نية스파크.

민선3년 결산))

평창

◇…민선1기 3년을 평창군은 무한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전국최고 관공휴양지로 개발하는 디딤돌을 놓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선1기동안 경창군은 관위주의 행정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달바꿈해 종합민원실을 신축했고 민원처리의 친절도 향상에 진력해 공무원 친절의식 조사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는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농업육성을 위해 군내 집단 경작지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 기계화 영농이 가능토록하고 용평면 이목정리에 산지집하장 건립과 도암면 차향리에 농특산 품 전시관매장 개설사업을 추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농업생산



金容郁 군수

완화대와 함께 군노인종합복지회관 보건의료원영안실 군종합문화회관 대화문화체육관 진부도서관 등의 신축에 착수해 군민들의 문화복지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군내 도암 진부 용평 봉평면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고원관광휴양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평창군은 내년1월 치러질 동계아시아경기 대회를 완벽하게 준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군내 용평리조트 보광 파느스파크를 중심으로 고원관광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부각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또 군내 최대자원인 청정 자연 산림환경의 보존과 개발에 힘써 도시증산층의 휴식 여가공간으로 제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고소득원으로 개발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와함께 올해내 입주예정인 평창읍 여민리의 지역농업 개발센터는 고랭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에 알맞는 고소득작물의 개발 및 재배기술을 보급해 군내 청정 특산물을 생산을 지원, 주민들의 안정적인 고소득기반을 마련해 줄 전망.

김군수는 “민선3년은 지역개발의 밀그림을 그리고 행정의 틀을 주민위주로 변화시키는 데에 역할을 뒀다”며 “이미 마련된 토대 위에서 미래형 관광 휴양 선진 농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쌓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平昌=申鉉泰)

주민위주 행정 탈바꿈 농업유통 획기적 개선 축산경쟁력 향상 성과

과 유통 및 판매에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과잉생산으로 판로를 잊은 감자 고추팔아주기 운동을 걸쳐 제고품을 판매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냈고 한우가격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한우 일본수출을 추진, 지난해 한우 2백마리를 수출하고 올해부터 자속적으로 수출길을 트게돼 축산 경쟁력 향상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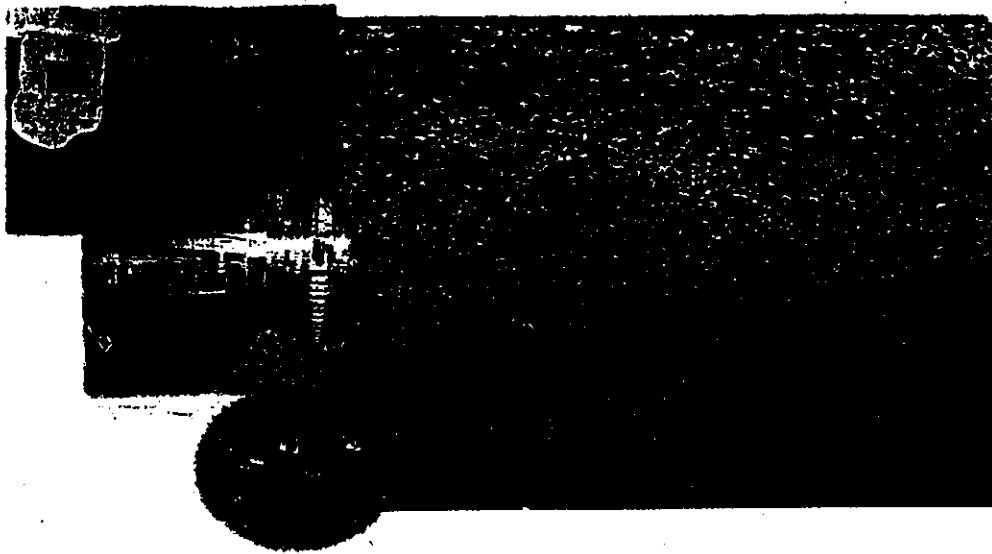
김容郁평창군수는 “농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주민편의 향상에 군정의 중점을 두고 각종사업을 추진했다”며 “봉사행정의 틀이 잡혀가면 더욱 활기찬 군정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평창군은 주민편의향상 농업지



(總編)

한국 전통 15000원 책 한권에 10권짜리 책



한국 전통

한국 15000원 책 한권에 10권짜리 책
한국 전통 15000원 책 한권에 10권짜리 책